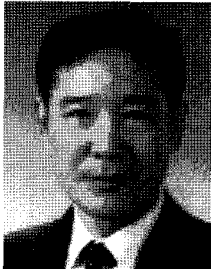


제3분과

기술사윤리, 기술사자격, FTA



글 | **姜 喜 喆**
(Kang, Hee Chul)

- 토목구조기술사
- (주)명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한일기술사교류위원회위원

E-mail: hckang51@yahoo.co.kr



▲ 만찬장에서 기념촬영

1. 머리말

2010년 10월 17일, 제40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엄이 일본의 시모노세끼시(下關)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카이쿄 유메타워(KAIKYO YUME TOWER) 앞의 '카이쿄멧세' 국제회의장에서 수 많은 한일기술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역사적으로 민족의 애환이 서린 이 항구도시에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양국의 기술사들이 참여한 좋은 기회의 장에 필자도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다. 양국의 기술사회장님과 여러 고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양국은 「Green Technology와 技術士の役割」이라는 symposium의 주제로 삼고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로 인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회의였다. 오후에는 각 분과별로 배정된 회의실에서 분야별 발표가 있었으며 필자는 제3분과(기술사윤리, 기술사자격, FTA)에 참여하여 발표하였다.

2. 제3분과 회의장(803호)에서

제3분과의 회의장은 803호에서 진행되었는데, 제3분과의 발표자로는 일본측 2인, 한국측에서 3인의 발표자가 있었으며 사회자-공동좌장(co-chair)으로는 일본 측의 하시모토(橋本義平: 정보공학/동경공업대학비상근강사)씨와 한국측의 문정균(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기술사가 사회를 보았다. 1인당 할애된 발표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된 가운데 양승렬씨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측의 히카미 카추이치(氷上 克一: 상하수도)기술사의 「과학기술의 빛과 그림자(light and shadow of the technology)」란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생활의 편리는 있었지만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물을 예로 들어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고 우리의 주의와 노력으로 어떻게 다시 환경이 보존되며 재생이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발표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계통용의 규범화로 대처하기 위해 기술자의 윤리학과 여러 공동체에서 이에 대한 윤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 측의 심순보(수자원개발/(주)이산)기술사의 「한일FTA-기술사 협력 과제와 방안」이란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한일 양국 간의 기술사협력 제안방안에 대해 여러 예를 들어가며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한중일 FTA추진 뿐 아니라 global network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한일기술사의 자격을 상호인정 하는 인정 위원회의 설립과 FTA/EPA 체제하에서 제3국 동반진출을 도모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하여 기후변화 녹색기술발전의 파트너십, 자연재난방재기술의 공동대응, 신 WATER 산업기술의 국제공동체제의 필요성, 건설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공동체제, 건설신소재 건설사업관리 방법(CM, PMIS 등) 그리고 UN기구 제3국 지원사업의 공동대체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climate partnership을 갖고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강조의 말씀이 있었다.

세 번째 발표는 일본 측의 메야마 나오끼(目山 直樹:건설/교수)씨의 「기술사에 의한 옴니버스 형식의 기술자 윤리교육의 실천」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기술자의 윤리의 중요성 및 의식 고취를 위해 고등전문학교(짧은 시간 내에 기술자 양성학교)에서 실제로 실시한 예를 들어 기술자윤리의식에 대한 수업형식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네 번째 발표는 한국 측의 공동좌장인 문정균 기술사가 「한·미 FTA에 따른 엔지니어링 시

장의 변화」란 주제 하에 발표가 있었으며 FTA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경제구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FTA의 목적은 인력교류와 시장교류가 그 목적임을 발표하였다. 특히, 한·미 FTA에 따른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중 엔지니어링 시장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기준의 최적모델 및 기술사자격상호인정(MRA)중심으로 심도 있는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토목구조; 평화엔지니어링)는 2009년 베트남 남부의 GMS-SCCP에 대한 설계소개와 기술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간단한 발표가 있었다.

3. 맺음말

처음으로 심포지엄에 참관한 필자에게는 마음속에 오고 간 것 들이 많았으며 부족했던 점 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내년 41회 대구 심포지엄에서 보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보며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양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제3분과 발표전경

〈원고접수일 2010년 10월 20일〉